

# 청소년기의 부모감독 변화에 대한 부모애착의 효과

정 윤 주(인천대 부교수)

## 연구목적

부모감독은 양육행동의 한 형태로 청소년 자녀의 발달 및 적응과 관련하여 긍정적 측면을 증진시키며 부정적 측면은 완화시킴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발달해 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자녀의 활동 반경이 부모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존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알리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처럼 청소년기 부모감독에서는 자녀의 협조가 중요하므로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감독은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감독이 청소년기에 변화되는 경향 및 경향의 개인차를 알아보고 그러한 개인차에 영향 미치는 변수로서 부모애착을 선정하여 부모감독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2003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추출된 중학교 2학년 청소년 3,449명(남자 1725명, 여자 1724명)으로 이루어진 표본을 2008년까지 연 1회씩 총 6회 반복 측정하여 수집된 것이다. 표본유지율은 2차년도 92.4%, 3차년도 90.6%, 4차년도 90.5%, 5차년도 86.0%, 6차년도 82.1%였다. 부모감독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4문항으로 측정되었고 4문항의 내적합치도는 1차년도 .85, 2차년도 .87, 3차년도 .89, 4차년도 .88, 5차년도 .89, 6차년도 .90이었다. 부모애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6문항으로 측정되었다. 6문항의 내적합치도는 1차년도 .86, 2차년도 .88, 3차년도 .88, 4차년도 .89, 5차년도 .90, 6차년도 .89이었다. 자료분석은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 연구결과

무조건 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 TLI=.968, CFI=.976, RMSEA=.049로 양호하였다. 초기치의 평균은 13.12, 변화율의 평균은 .156이었고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감독의 초기치가 13.12였고 매년 .156씩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초기치의 분산은 5.96, 변화율의 분산은 .151이었고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부모감독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예측변수로 부모애착을 추가하고 시간 의존적 효과 모형과 시간 독립적 효과 모형을 추정하였다. 시간 의존적 효과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chi^2=212.43$  ( $df=46$ ,  $p < .001$ ), TLI=.984, CFI=.991, RMSEA=.032로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시간 독립적 효과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  $\chi^2=286.73$  ( $df=51$ ,  $p < .001$ ), TLI=.980, CFI=.987, RMSEA=.037로서 역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부모감독에 대한 부모애착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추정된 시간 의존적 모형과 시간 독립적 모형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므로 이 두 모형 중에서 더 적합한 모형을 알기 위하여 두 모형의  $\chi^2$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Delta df = 5$ ,  $\Delta \chi^2 = 74.30$ 으로  $p < .05$  수준의 임계치 11.07을 초과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다. 따라서 시간 의존적 효과 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택되었고 부모감독에 대한 부모애착의 효과는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간 의존적 효과 모형에서 부모감독에 대한 부모애착의 경로가 모든 측정시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연령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청소년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점차 더 많이 알게 됨을 보여준다. 부모감독의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부모감독이 연령 증가에 따라 변화되는 율은 청소년에 따라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부모애착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시간 독립적 모형보다 시간 의존적 모형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각 측정 시점에서 청소년이 부모와의 애착을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부모의 감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시간 의존적 효과의 경로 계수를 살펴본 결과, 매 측정시점에서 부모애착이 부모감독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부모애착은 부모감독에 항상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생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충분히 감독하려면 부모자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생활을 감독할 수는 없고 자녀가 부모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감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부모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